

# ‘한식대첩-고수외전’, ‘쿡방’의 하락세에도 성공



‘한식대첩’이 단순 잘 만들고 잘 먹는 것이 아닌 한식의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포화상태인 ‘쿡방’ 요리하

## 해외 유명 셰프들 출연 한식 대결 펼쳐

는 방송)과 ‘떡방(먹는 방송)’ 속 에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케이블TV 올리브 세 예능프로그램 ‘한식대첩-고수외전’이 15일 저녁 첫 방송했다. ‘한식대첩’은 대한민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 고수들이 출전해 각 지역의 이름과 자존심을 걸고 펼치는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되는 ‘한식대첩-고수외전’은 예능프로그램 ‘한식대첩’의 스핀오프로, 한식에 관심이 많은 해외 유명 셰프들이 출연해 한식 대결을 펼친다. 글로벌 셰프들은 지난 시즌 동안 출연했던 국내 고수들과 팀을 이뤄 각 지역의 한식을 배우며 요리를 만든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외 스타 셰프들의 소개와 함께 고수들과 짝을 지어 본격적인 요리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각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셰프 데일 맥케이, 마일로 발라디, 파브리치오 페라리, 이말 산타나, 세르히오 베지는 도전

하는 소감과 함께 한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곧이어 한국에 온 그들은 한식 고수들의 음식을 맛본 뒤 각자 멘토-멘티가 되어 본격적인 한식 요리 대결을 준비해 이후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쿡방’의 원조격인 ‘한식대첩’은 2013년부터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 사이 각종 ‘쿡방’과 ‘떡방’ 예능프로그램들이 유행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났고, 현재는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한식대첩’은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글로벌 스타 셰프를 섭외해 한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화했다.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한식을 한국의 고수들이 직접 전수해 한식의 글로벌화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첫 회에서는 한식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이날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한식을 맛보는 해외 셰프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은근내장탕,

구절판 등은 먹으며 ‘빨강이 많은 한식은 처음이다’고 감탄했다. 이를 통해 한식이 해외에서 맏고 짠 음식으로 낙인찍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한국에는 물론 해외 셰프들에게도 한식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글로벌 셰프들의 음식에 대한 진지한 모습 또한 프로그램에 진정성을 더했다. 미술생 스타는 물론 ‘톱 셰프 코리아’ 우승자까지 남다른 실력을 뽐내고 있는 그들이었으나 한식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진지한 모습으로 임했다. 유명 셰프들이 한식 고수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는 모습에서는 한식의 글로벌화는 물론 셰프로서의 진심마저 느껴지게 했다. 2회 방송에서는 셰프들의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시 한 번 평가위원으로 나선 백종원의 맛깔스러운 진행과 설명이 덧붙여지며 프로그램을 풍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셰프들이 한식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있을지, 우승자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징크스 갠 ‘보이스2’, 시즌3 기대해



다. 그러나 ‘보이스’는 달랐다. ‘속 편은 본편보다 못하다’는 시즌제 징크스를 가볍게 날린 작품인 만큼, 열린 결말은 오히려 시즌3에 대한 기대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됐다. 시청자는 ‘보이스’에서 보여줬던 배우들의 농익은 열연과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야동 폭행 등 무겁고 잔혹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작품성을 일찌감치 인정했다. 지난 시즌보다 촘촘히 레이어를 쌓아올리며 충격적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전개 또한 ‘보이스’ 원년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시청자는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기획 단계부터 시즌2,3를 함께 생각했다는 제작진의 의도에 시청자는 완전히 걸려들었다. 앞으로 시즌3에서는 도강우가 잃어버린 기억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27년 전 부친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자신이 미호의 귀를 유심히 봤던 기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권주는 살아남았는지 등 수많은 궁금증과 떡밥의 해답이 등장해야 할 터다. 복잡다단했던 드라마의 마무리를 짓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셈. 이에 시청자들도 시즌 1, 2를 이끈 이화나는 물론, 시즌의 정력과 시즌의 이진욱이 모두 등판해 그 어떤 드라마보다 완벽한 마무리를 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 영화 ‘명당’의 강약조절, 오히려 주객전도 불러왔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압부’라는 이야기에서 예상되는 포인트는 확실하다. 다름을 벌일수록 불강이 타오르는 욕망 그리고 그 안에 뛰어드는 자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 영화 ‘명당’은 풍수지리라는 신선한 소재에 무작정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며 강약조절을 확실하게 했다. 영화 ‘명당’은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의 뒷자리 쟁탈전이다. 그 중심에 있는 건 2명의 왕을 배출할 최고의 대명당이다. 극중 인물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드는데, 영화는 이렇게 얼치락뒤치락하는 인물들의 싸움을 강조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이는 변곡점에서 나오는 긴장감은 그 다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서인지 욕망에 사로잡힌 캐릭터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명확하다.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친구, 가족까지 버리는 인물들의 극악무도한 모습은 땅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준다. ‘사람이 살아야 할 땅이 죽어나가는 자리’가 됐다는 극중 대사처럼 ‘명당’이 보여주는 일관된 대비는 깊은 여운을 준다. 하지만 권력다툼이 주된 이야기로 흘러가는 과정에까지 못하고 주변에 맴도는 인물도 있다. 그 인물이 바로 주인공 박재상(조승우)이라는 점이 큰 맹점이다. 박재상은 모두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가운데, 뜻밖이 울바름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이런 박재상의 소신이 목살되는 장면은 극 초반에 나와 이야기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좌절되는 박재상의 목소리는 결국 캐릭터가 힘을 잃게끔 만든다.

게다가 흥선(지성)의 평가가 극을 휘어잡으면서 중심을 파고드는 악인과 주변으로 밀려나는 박재상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박재상이 빼놓지 않은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제 아무리 노력해도 통쾌할 한 번 주지 못 해 악인들에 휘둘리는 인상마저 준다. 이는 ‘권선징악’이라는 구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캐릭터의 힘 조절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그러다보니 결말에서도 역시 힘이 빠진다. 경쟁구도에 신경을 쓰느라 후반부 개연성을 잃고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이렇다. 박재상이 ‘선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내용도 오히려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명당’은 주인공을 앞세워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 ‘과정’을 보여줘 관객에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좋게 말하자면 권력다툼을 강조해 관객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운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주객전도가 됐다. 오는 19일 개봉.

## SBS ‘빅피쳐패밀리’, 25일 첫방송 확정



차인표-박찬호-류수영-우효광이 출연하는 SBS 신규 예능프로그램 ‘빅피쳐패밀리’가 오는 25일(화) 첫 방송을 확정지었다. 추석을 연휴인 25일, 26일 방송되는 SBS 신규 예능 ‘빅피쳐패밀리’는 ‘살며 찍고 나누는 인생샷’을 콘셉트로 팬의 사랑꾼 스타들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일주일 간 동거하며 ‘인생샷’을 찍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이 최근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게 한 사람의 조합으로 방송 힙부터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인표는 ‘빅피쳐패밀리’의 든든한 ‘말형’이자 열정 민첩 선전남으로 나선다. 두 번째 멤버는 ‘코리아 특급’ 박찬호다. 앞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예능 블루칩임을 입증했던 박찬호는 ‘빅피쳐패밀리’에서 동네 사진사로 거듭났다.

‘세 번째 멤버는 배우 류수영이다. 막내는 중국 배우 우효광이다. 추자현의 남편이자 ‘우블리’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을 통해 ‘결혼조하’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국민 사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이 어우러진 경상남도 통영에서 일주일 간 동거하며 ‘빅피쳐’ 사진관을 열게 된다.

‘세 번째 멤버는 배우 류수영이다. 막내는 중국 배우 우효광이다. 추자현의 남편이자 ‘우블리’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을 통해 ‘결혼조하’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국민 사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이 어우러진 경상남도 통영에서 일주일 간 동거하며 ‘빅피쳐’ 사진관을 열게 된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음력 8월 9일)

<p>▶<b>쥐</b>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을 취하라.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하는 아량이 필요하다. ㄹ, ㅂ, ㅈ 성씨 구설로 신경 쓸 일 생길 것이다.</p>	<p>▶<b>돼지</b>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전보다 몇 배 노력하고,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지만,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알라. 1, 4, 9 월생 금전 때문에 고심하겠다.</p>	<p>▶<b>원숭이</b>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좋아도 자만심은 금물이다. 필요 이상 지출한다.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위 사람 조언을 들으면 효과가 있겠다. 진행하는 일은 희소식을 안겨준다. ㄱ, ㄴ, ㅍ 성씨 애정 문제 순탄하구나.</p>
<p>▶<b>사슴</b>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잘 돼 가던 일도 느리다. 허와 실을 분명히 하라.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아랫사람보다 위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4, 5, 6월생 검은색을 피하라. 빨간색 계열이 행운의 색이다.</p>	<p>▶<b>황새</b>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댕이로다’는 말처럼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덧 정상에 다다른다. 겁부터 내지 말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도약의 길로 나서라. 힘껏 내디딜 때 주위에 귀인이 나타난다. 큰 성과가 따른다.</p>	<p>▶<b>닭</b> 어려운 시기가 서서히 지나고, 좋은 날이 다가온다. 쌓아둔 감정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라. 헤어진 사람과 재회한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임하라.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하다.</p>
<p>▶<b>황소</b>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속을 찾을 때다. 충동적으로 남의 말만 믿고 확장하는 것보다 흐름에 따라 결정하라. 애정은 서로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해야 시간을 절약한다.</p>	<p>▶<b>말</b> 신의를 지켜 행동하면 운이 따른다. 하는 일도 순조롭겠다. 애정은 각별히 신경 써서 상부상조하라. 애정은 상대가 단 곳에 마음을 뒤틀려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 나를 뒤돌아보며 길을 찾으라.</p>	<p>▶<b>개</b> 순리대로 일이 풀려나갈 운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다. 헛된 망상과 과욕은 금물이다. 심리적인 불안과 과로로 건강이 염려되니 휴식하라. 7, 8, 9월생 남쪽이 길하다.</p>
<p>▶<b>토끼</b>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면 오히려 내 발전에 장애 될 수 있다. 답답한 일들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 6, 7, 9월생 남을 너무 믿지 말라. 특히 남자를 조심하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지 않나.</p>	<p>▶<b>호랑이</b> 한 번에 여러 일이 일어나니 어수선한 상태구나. 방향치 말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 현재는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는 것이 많아 득이 없는 격이다. 애정은 믿음과 소신으로 유혹을 물리치라. 한 번 실수로 평생 후회할 일 생길다.</p>	<p>▶<b>돼지</b>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큰 성과가 따를 듯하다. 번들거리고 한다면 잘 생각하라. 실패 수가 있다. 사업가는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되겠다.</p>